# 중국의 제5차 개헌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

**중국 화동정법대학 법학 박사과정 문혜정**

**2018년 3월 17일 헌법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시진핑 총서기의 모습**

**(자료출처 :「新华网」 http://bitly.kr/tp7r)**

## 들어가며

그동안 중국은 특유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속에서 법보다는 인맥을 뜻하는 ‘꽌시(关系)’와 체면을 뜻하는 ‘미엔즈(面子)’가 중요하다는 이미지가 강했다. 그러나 2012년 시진핑 총서기는 취임과 동시에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의법치국(依法治国)[1]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8년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라고 함.)는 헌법에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2](이하, ‘시진핑 사상’이라 함.)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그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 국내외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2018년 3월 시진핑 총서기가 중국의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헌법선서를 했는데, 이는 중국내에서 ‘의법치국’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중국내에서 헌법의 중요성이 이처럼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

1) 법에 따른 국가 통치를 뜻한다.
2) 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

에서 제5차 헌법 개정안에 포함된 시진핑 사상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이 리포트에서는 시진핑 사상의 내용과 시진핑 사상이 중국 헌법 개정안에 포함되기까지 과정에 대해서 검토한다.

## 1. 중국의 발전 상황을 나누는 3가지 시대

시진핑 총서기는 2017년 개최된 제19차 당대회[3]에서 중국을 크게 3가지 시대로 나누어 "짠치라이(站起来), 푸치라이(富起来), 창치라이(強起来)!" 라고 표현했다. 이 표현의 의미는 중일전쟁과 국공내전으로 리셋(reset) 상태가 된 중국을 "마오쩌둥(毛泽东)이 일으켰고, 덩샤오핑(邓小平)이 부유하게 했고, 시진핑(习近平)이 강력하게 한다."는 의미이다. 시진핑 총서기의 목표는 샤오캉(小康) 사회[4]를 건설하고, 최종적으로 중국몽(中国夢)[5]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몽을 실현하는 키워드가 바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이다. 시진핑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근현대사를 살펴보면 도움이 된다. 이에, 이하에서는 중국의 짠치라이, 푸치라이, 창치라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살펴본다.

### (1) 짠치라이(站起来) 마오쩌둥 시대

1949년 10월 1일 공산당이 국공내전에서 승리하면서 마오쩌둥[6]은 중국 대륙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했음을 선언한다. 그리고 중국 초대 국가주석이 된 마오쩌둥은 중일전쟁과 내전으로 피폐해진 중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5개년 단위의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중국은 1953년 소련의 원조를 받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착수했다. 중국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은 중국 공업화의 기반을 닦는 것이었다. 그러나 1957년 소련이 중국에 지원을 중단하면서 경제적 불균형과 농업생산량이 급격히 저하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

---

3) 5년마다 개최되는 중국 공산당 당대회는 지난 5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5년간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행사이다.

4) 의식주 걱정하지 않는 물질적으로 안락한 사회, 비교적 잘사는 중산층 사회를 의미한다.

5)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의미한다.

6) 마오쩌둥의 사상은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인 마오쩌둥이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중국의 현실에 맞게 계승 ·발전시킨 독자적인 혁명사상이다. 마오쩌둥 사상은 1945년 중국 공산당 제7차 당대회에서 당 규약에 포함되었다. 1956년 스탈린 격하운동(de-Stalinization)이 시작되면서 그 영향을 받아 9월에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8차 당대회에서는 당 규약에 명시된 '마오쩌둥 사상을 당의 최고 방침으로 한다.', '마오쩌둥 사상을 학습하는 것은 당원의 의무'라는 두 조항이 삭제했다. 그러나 1966년 5월에 문화대혁명이 시작되면서 마오쩌둥 사상은 다시 중국 공산당 장정(章程) 및 헌법 서문에 명기되었다.

이에, 마오쩌둥은 1958년부터 5년간 이루어진 제2차 경제개발 계획 기간에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총 노선' '농공업 생산의 대약진' '인민공사'를 의미하는 삼면홍기(三面紅旗)라는 슬로건을 걸고 경제 성장운동을 이끌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중국은 무리한 농공업 정책을 추진하면서 수천만의 인민들이 굶어 죽는 사태가 발생했고 결국 대약진 운동은 실패로 끝난다. 마오쩌둥은 대약진 운동이 실패하면서 1959년 류사오치(刘少奇)에게 국가주석 자리를 내주고 상징적인 당 주석 자리만 지키게 된다. 그리고 국가주석에 오른 류사오치는 대약진 운동을 비판하고 실용주의 경제정책을 펴게 된다. 그러나 마오쩌둥은 대약진 운동의 실패는 정책 방향의 문제가 아닌 추진력의 문제라고 보았다. 마오쩌둥은 1966년 '마오쩌둥 사상'을 전면에 내세우고 이상주의 사회주의를 건설하자고 주장하며 문화대혁명을 일으킨다. 그리고 중국은 문화대혁명(1966년~1969년)[7]이라는 암흑기를 거치면서 경제는 나락으로 추락하게 된다.

### (2) 푸치라이(富起来) 덩샤오핑 시대

마오쩌둥이 서거한 후 덩샤오핑이 정권을 잡는다. 1979년 덩샤오핑은 중국의 현대화 발전 정책으로 삼보주전략(三步走战略)[8]을 제안하고 중국을 원빠오(温饱)사회[9], 샤오캉(小康)사회[10], 따퉁(大同)사회로 점차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당의 이념도 '사상해방(思想解放)'과 '실사구시(實事求是)'로 채택하고, 선부론(先富论)[11] 및 흑묘백묘론(黑猫白描论)[12]을 펼치며 중국에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덩샤오핑이 상술한 이론을 펼쳤을 때 중국 인민들은 덩샤오핑의 이론을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이 시기의 중국 인민들은 마오쩌둥 시대의 문화대혁명으로 수많은 지식인이 주자파(走資派)[13]로 몰려 숙청을 당하는 것을 지켜

---

7) 중국영화 패왕별희의 시대적 배경이 바로 문화대혁명 시기이다.
8) 중국어로 직역하면 '세 발자국을 걷다'라는 의미로 3단계 성장전략을 의미한다.
9) 원빠오(温饱)사회 (1981년~1990년): 이 단계의 목표는 중국의 GDP를 두 배로 증가시켜 모든 인민들이 따뜻하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10) 샤오캉(小康)사회 (21세기 중기): 이 단계의 목표는 일인당 평균 GDP를 중진국 수준으로 향상시켜서 모든 인민들이 의식주 걱정없이 평안하고 안정된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샤오캉과 따퉁은 모두 덩샤오핑이 유교경전 예기의 예운편에 나오는 말을 차용한 것이다. 공자는 시대의 변천을 어지러운 난세, 소란하던 세태가 다소 안정된 상태인 샤오캉(小康), 천하를 한 집으로 생각하는 따퉁(大同), 세 가지로 구분했다.
11) 선부론(先富论)은 '능력 있는 자가 먼저 부자가 되어라.'(一部分地区先富起来)의 줄임말이다.
12) '不管黑猫白猫 抓老鼠 就是好猫' 이 말을 직역하면 검은 고양이든 하얀 고양이든 상관없이 쥐를 잡으면 좋은 고양이라는 뜻이다. 속뜻은 자본주의자든 공산주의자든 중국 인민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13) 중국 공산당 내에서 자본주의노선을 주장하는 파를 의미한다.

보았기 때문이다. 나아가, 당시 강경파 공산주의자들도 덩샤오핑의 정책을 반대했다.
이러한 배경아래 덩샤오핑은 1982년 9월 1일 개최된 12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14] 건설이라는 이념을 제시했다. 여기서 말하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란 정치적으로는 기존의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지만, 덩샤오핑의 선부론 및 흑묘백묘론을 통해서 경제적으로는 개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 (3) 창치라이(強起来) 시진핑 시대

시진핑 정부의 정책 키워드는 부패 척결과 경제개혁이다. 중국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이후 장쩌민과 후진타오 시대를 거쳐 급진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그러나 중국은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사회적으로는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정경유착으로 인한 부정부패가 극심해졌다. 이에, 시진핑 정부는 중국 사회에 만연한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호랑이(고위관리)든 파리(하위관리)든 다 때려잡겠다고 선포한 바 있다. 한편으로 시진핑 총서기는 2012년 취임한 이래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을 강조하고, 전면적인 개혁을 시행 중이다. 시진핑 총서기는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2020년까지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를 건설하고, 중국 건립 100주년이 되는 2050년까지 위대한 사회주의 현대국가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 2. 중국 헌법에 시진핑 사상을 도입하기까지 경과

2017년 10월 18일 개최된 제19차 공산당 당대회에서 중국 공산당의 헌법이라고 일컬어지는 장정(章程)에 시진핑 사상을 포함하는 개정안이 당 대표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후, 2018년 3월 11일 개최된 제13기 전인대에서 중국 헌법 제5차 개정안에 시진핑 사상을 포함하는 안건이 통과되었다. 이하에서는 2017년 당대회와 2018년 전인대에서 통과된 시진핑 사상의 내용 및 경과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한다.

### (1) 2017년 10월 24일 당대회

14) 中国特色社会主义.

중국 공산당 당대회는 지난 5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5년간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행사이다. 2017년 10월 18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국 제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은 공산당의 지도사상중 하나로 명기되었다. 기존의 중국 공산당 장정(章程)에는 "중국 공산당은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과 '3개 대표' 중요사상[15], 과학발전관을 자신의 행동지침으로 삼는다." 라고만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제19차 당대회에서 중국 공산당 장정의 수정안이 통과되면서, 상술한 공산당의 지도사상에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이 더해진 것이다.

시진핑 총서기는 19차 당대회에서 불망초심(不忘初心)을 여러 번 강조했다. 여기서 말하는 초심(初心)이란 중국 공산당의 설립이념을 말한다. 1949년 10월 1일에 성립한 중화인민공화국은 신(新)중국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공산당이 없다면 신중국은 없다.'[16]라는 노래가 유행할 만큼 중국 인민들은 당을 신뢰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부정부패 등으로 인한 빈부격차와 양극화 문제가 발생하면서 중국 인민들이 당에 가지는 신뢰도가 신중국의 성립했을 당시와 비교해 매우 하락했다. 이와 관련하여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은 2012년 중국 공산당 90주년 기념식에서 '부패하면 당이 망하고 국가가 망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17]

이러한 배경아래 시진핑 총서기는 2012년 취임 당시 부패 척결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걸었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견지하고 추진하여 중국의 부흥을 이루겠다고 한 것이다. 그리고 지난 2017년 시진핑 총서기는 제19차 당대회에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가 신시대(新时代)에 진입했다고 언급했다. 여기서 말하는 신시대는 앞서 언급한 신중국을 대체하는 표현이다. 그리고 시진핑 신시대의 통치사상은 이치와 정치로 나라를 통치한다는 의미인 치국이정(治国理政)이고, 치국이정의 골자는 5위 일체(五位一体)와 4개 전면(四个全面)이다. 먼저 5위 일체의 5위란 경제건설·정치건설·문화건설·사회건설·생태문명건설을 말한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5개 부분을 총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5위 일체이다. 4개 전면은 샤오캉 사회를 건설하고, 개혁을 심화하고, 법에 기초하여 국가를 통치하고, 엄격하게 당을 통치하는 것을 조화롭게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

15) 항상 중국의 선진 사회 생산력의 발전 요구를 대표한다. (始终代表中国先进社会生产力的发展要求.)
항상 중국의 선진 문화의 전진 방향을 대표한다. (始终代表中国先进文化的前进方向.)
항상 중국 대부분의 인민의 근본 이익을 대표한다. (始终代表中国最广大人民的根本利益.)

16) 没有共产党就没有新中国.

17) 腐败可致亡党亡国.

### (2) 2018년 3월 11일 전인대

중국은 1954년 처음으로 헌법을 제정했고 1975년, 1978년, 1982년에 개헌했다. 그리고 중국의 현행 중국의 헌법인 82헌법(八二宪法)은 1988년, 1993년, 1999년, 2004년, 2018년에 일부 개정했다. 특히 1978헌법에서는 헌법전문 이외에 헌법 제2조에 중국 공산당은 모든 중국 인민을 지도하는 핵심이라고[18] 명기되어 있었지만, 82헌법에서는 해당 부분이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 속한다."[19]라고 개정되었다. 그리고 이번 헌법 개정안에서도 공산당의 지도 및 시진핑 사상이 강조되었다.

중국 전인대는 2018년 3월 11일 헌법전문의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 중요사상의 지침 하에서"라는 문구에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의 통치사상인 과학발전관과[20]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헌법에 명기되었다.[21]

2018년 3월 중국의 헌법 개정안 표결에 사용된 표결표의 이미지
총 8개의 언어로 표기되어 있다.
(자료출처 : http://bitly.kr/Xq4r)

18) 1978宪法 第二条 中国共产党是全中国人民的领导核心.
19) 1982宪法 第二条 中华人民共和国的一切权 力 属于人民.
20) 후진타오의 통치사상인 과학발전관은 2016년 중국 공산당 헌법인 중국 공산당 장정(章程)에는 명기되었다.
21) 주목할 부분은 중국 헌법에 지도자의 이름과 지도사상이 같이 명기된 것은 마오쩌둥 사상과 덩샤오핑 이론뿐이다. 장쩌민의 '3개 대표' 중요사상과 후진타오의 과학발전관은 지도사상으로서 헌법에 명기되어 있지만, 해당 사상 앞에 지도자의 이름은 없다.

## 나가며 - 시진핑 사상과 전망 -

중국의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이란 중국이 과거에는 경제발전을 위해서 흑묘백묘론을 비롯한 실사구시 정책을 펼쳐왔지만, 앞으로는 중국 공산당의 설립이념을 잊지 않고 초심으로 돌아가 공산당 일당 지배 체제를 확고히 하겠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이 리포트에서 검토한 시진핑 사상이 중국의 정책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되는 것일까? 여러 방면에서의 반영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예컨대 시진핑의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소위 '시코노믹스(Xiconomics)'라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2017년 10월 18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국 제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사상을 중국 공산당 장정에 명기하기로 결정한 이후 2017년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 중국경제공작회의[22)]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경제사상'이라는 새로운 이념을 공식화했다. 그리고 시진핑 총서기를 주도로 하는 시진핑 경제사상을 크게 선전하고, 반드시 견지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시진핑의 경제정책을 향후 시진핑 집권 기간은 물론이고 이후에도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선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시진핑 경제사상이란 중국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경제성장 방식을 전환하면서 신시대에 진입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혁신, 협조, 친환경, 개방, 공유의 발전 이념을 당 중앙의 지도하에 추진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상술한 내용은 시진핑 총서기가 1기 집권 기간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경제정책 방향이다. 주목할 부분은 '시진핑 사상'이 공산당 당헌 및 중국 헌법에 명기되면서 시진핑 총서기의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시진핑 총서기가 1기 집권 기간 중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시진핑의 경제정책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사회에서 시진핑 사상에 이토록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중국이 시진핑 사상을 행동지침으로 하여 정치, 경제, 사회, 이념, 환경보호 등 전면적인 분야에서 일을 추진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의 인민대 등에는 시진핑 사상 연구센터가 설립되어 있고 시진핑 사상과 관련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향후 시진핑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22) 중국경제의 중대한 정책 방향은 중국경제공작회의에서 결정한다.